

아무도 몰랐던 미래발명이야기

농담이나 무스켓신리를 할때
최종이 느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것에
비유한다.



유년의 가장자리에서 북이 들어오면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어두워진
실재를 단숨에 대낮같이 밝히는
흔적광등!



형광등이 탄생하기 전만해도 백열등이
조명계의 황제였었다. 형광등이 등장할까
참에 백열등은 천국에서 물러나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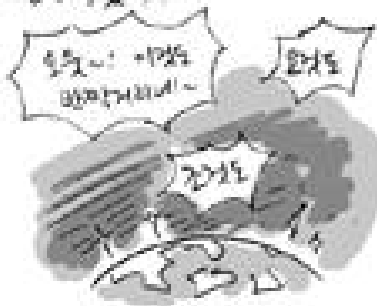
형광등을 만들어내려는 최초의
시도는 프랑스의 과학자 '앙리
모세크레르'가 의해서였다.



1857년 모세크레르는 가이슬러관을
사육하여 일종의 형광등을 만들어냈다.
가이슬러관은 휘발가스 안에서 방전에
의해 생기는 백열광을 실현하기 위해
쓰는 기구였다.



사실 여러나라의 과학자들도
이시기에 비슷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적정한
과정의 발전으로 짧게 형광등
발광하는 무늬를 수백가지나
발견하였다.



최초의 실용적 램프의 개발은
1834년경, 제이컬 일렉트릭사의
공통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보통형의 평구 가스아 홀머한
가늘고 긴 관에서 내부에 형광물질이
분포해 있고, 이것이 관 양끝이 두 전극
사이를 통과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
즈마의 자외선에 반사되어 밝아지는
것이다.



이런듯 형광등의 별명과 오늘날까지의
발전과정에는 예스하 사랑나 업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숨은 공도가 있었을 것이었다.



이것은 1839년 뉴욕의 세계박람회
에서 소개되어 극찬을 받았다. 그로부터
15년후 따 모양의 형광등은 미국이
전기조명에서 주류를 이루었고 바 밑등을
일등시켰다.



어찌보면 형광등집의 성품변화에
의해 갖가지 그림자나 색조도
만들어 내는등 그 적음도 면에서도
백열등과보다 훨씬 뛰어나다.



말의도 조명의 밝기로
계속되고 있어서 형광등보다
어둡기 때문에 조명이 특히
안암에 등안할것을 기대해볼라신

